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77-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2대 총선 특집: 투표율 분석

2024. 04. 15.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22대 총선 투표율 분석

22대 총선 최종투표율 67.0%, 총선 기준 32년만에 최고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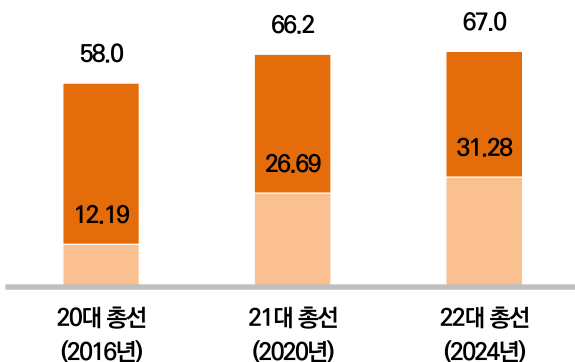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22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7.0%로 공식 집계되었다. 이는 직전 치러진 21대 총선(66.2%)보다 0.8%포인트 높으며, 총선 기준으로는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71.9%) 이후 최고 투표율이다.

사전투표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6회지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20%만이 사전투표를 했으나, 2020년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자의 비율은 전체 투표자의 40%를 뛰어넘는다. 이번 총선에 투표한 사람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사전투표자이다.

22대 총선 최종투표율 67.0%,
32년만의 최고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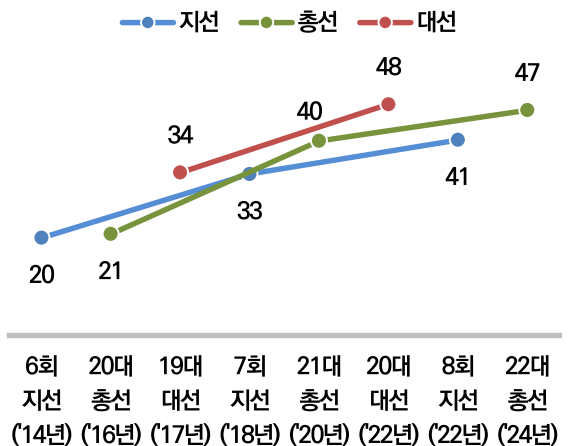
(단위 : %)

■ 최종투표율 ■ 사전투표율



전체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

(단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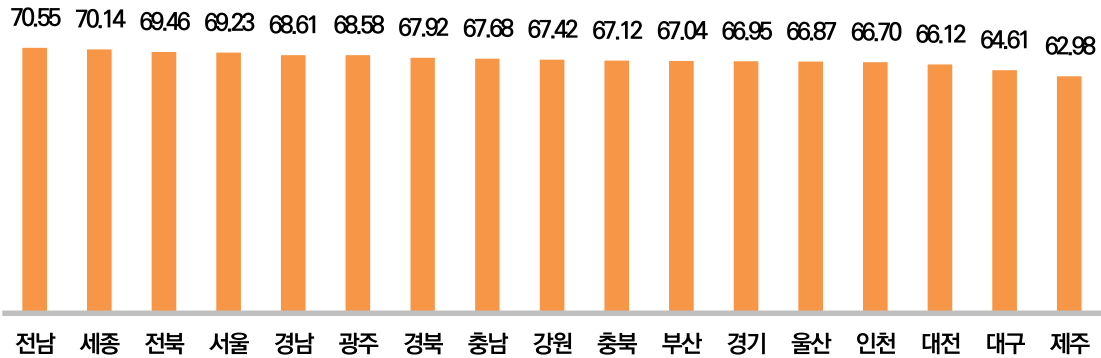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 평균 70.55%,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 평균은 62.98%로 가장 낮아

기초자치단체 평균 기준으로, 최종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 평균은 70.55%이다. 앞서 전라남도는 기초자치단체 사전투표율 평균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2개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은 평균 62.98%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제주시의 최종투표율은 61.26%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9번째로 낮으며, 서귀포시의 최종투표율 또한 64.69%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17개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투표율 평균,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아

(단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자료로 재계산

비고: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의 평균값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 투표율과는 상이함.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일선거구임

기초자치단체 기준, 투표율 상위 10곳,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 분당, 전남 구례 등
투표율 하위 10곳은 경북 칠곡, 충남 천안 서북, 경북 구미 등

(단위 : %)

투표율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 시 분당구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양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곡성군	경기도 용인 시 수지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라남도 함평군
	78.10	76.13	75.00	74.71	74.40	74.37	74.29	74.28	74.06	74.06
투표율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경상북도 칠곡군	충청남도 천 안시 서북구	경상북도 구미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안산 시 단원구	충청남도 천 안시 동남구	경기도 부천 시 오정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청북도 청 주시 흥덕구
	59.25	59.30	59.69	59.89	60.21	61.09	61.12	61.23	61.26	61.2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 큰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9곳이 대구경북 지역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 작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9곳이 충청 지역

지난 대선 대비 투표율과 비교해보면,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이 큰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전북 군산시를 제외한 9곳이 모두 대구경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이다. 대구경북 지역 32개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 하락폭 평균은 12.3%포인트에 달해 가장 크다. 두 번째로 하락폭이 큰 곳이 호남(11.7%포인트)임을 감안하면, 승패가 일찌감치 가려진 곳일수록 투표율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이 작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9곳이 충청,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은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인 곳이며 동시에 투표의향이 높은 고령층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들로, 투표 열기가 뜨거운 조건을 두루 갖춘 곳들이다.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과 비교할 때도, 투표율이 증가한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충청지역 기초자치단체가 6곳이다.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의 투표율이 4년 전 대비 각각 6.9%포인트, 6.5%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의 투표율도 지난 총선 대비 5.9% 상승했다.

반면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 수성구(5.7%포인트 하락)이며, 이어서 전남 고흥군(4.7%포인트 하락), 전북 진안군(4.6%포인트 하락) 등의 순이다.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 큰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9곳이 대구경북 지역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 작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9곳이 충청 지역

(단위 : %p)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 큰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포 항시 남구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울릉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중구
	-15.8	-15.5	-15.5	-15.0	-15.0	-15.0	-14.9	-14.8	-14.8	-14.7
20대 대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 작은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괴산군	부산광역시 북구	충청남도 예산군
	-3.9	-4.0	-4.1	-4.5	-4.6	-4.6	-4.7	-5.2	-5.5	-5.9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 증가폭이 큰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충청이 6곳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 하락폭이 큰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수성, 전남 고흥, 전북 진안 등

(단위 : %p)

21대 총선 대비 투표율 증가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충청남도 부여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북도 예천군
	+6.9	+6.5	+6.3	+5.9	+5.9	+5.7	+5.5	+5.4	+5.3	+5.3
21대 총선 대비 투표율 감소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라남도 고흥군	전북특별자 치도 진안군	경상북도 포 항시 남구	경상남도 거창군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 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목포시
	-5.7	-4.7	-4.6	-4.1	-4.1	-3.9	-3.8	-3.5	-3.4	-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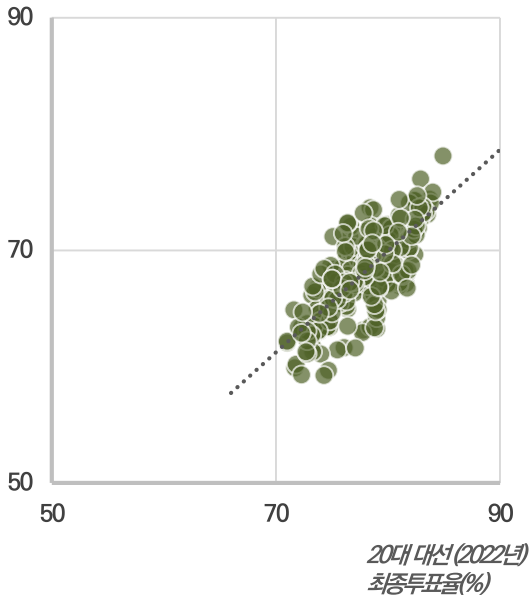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대 대선, 21대 총선 투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총선 투표율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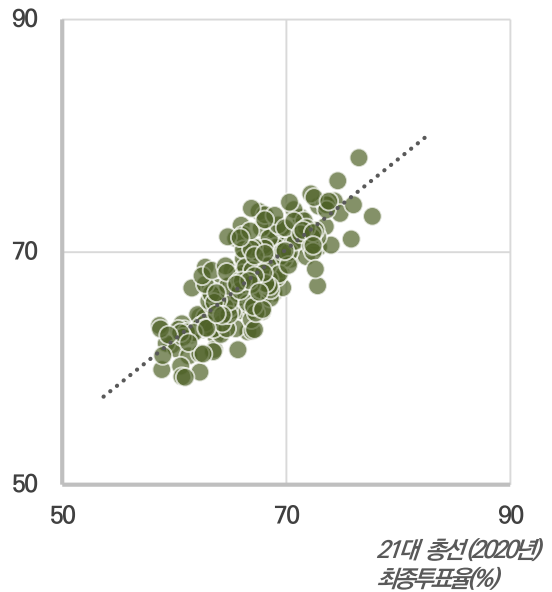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의 투표율과 이번 총선의 투표율 간 관계를 확인해 보면,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이번 총선의 투표율도 높은 경향이 확인된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의 투표율과 이번 총선의 투표율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이번 총선의 투표율도 높다.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이번 선거에서의 투표율 간의 높은 상관성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과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 비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 투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총선 투표율도 높아

22대 총선 (2024년)
최종투표율(%)



22대 총선 (2024년)
최종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20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의 최종투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최종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종합하자면,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최고 투표율이다. 사전투표율 또한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전체 투표율 상승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21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이번 총선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 다수가 큰 폭의 투표율 하락을 보였다. 이는 선거 경합도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보수층의 투표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선거구 단위 최고 투표율은 경기성남분당갑 77.1% 투표율 높은 선거구 10곳 중 9곳에서 1-2위 격차 10%포인트 이내 접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경기성남분당갑으로, 전국 평균을 10%포인트 이상 뛰어넘는 77.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안철수 등 이름값 높은 두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초접전 상황을 이어가 주목을 받은 곳이다. 이는 높은 투표 열기로 이어져, 선거구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웃 선거구이자, 역시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경기성남분당을 또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75.0%)을 기록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 10개 중 9개가 수도권 선거구이며, 서울강남을 제외한 9개 선거구에서 10%포인트 이내 격차로 당선자가 가려졌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10개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에서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선거구 단위 최고 투표율은 경기성남분당갑 77.1% 투표율 높은 선거구 10곳 중 9곳에서 1-2위 격차 10%포인트 이내 접전

〈투표율 상위 10개 선거구〉

연번	선거구	투표율 (%)	당선자	1-2위 격차(%p)
1	경기성남분당갑	77.1	국민의힘 안철수	6.56
2	경기안양동안을	75.7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7.72
3	경기성남분당을	75.0	국민의힘 김은혜	2.26
4	경기의왕과천	74.7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8.74
5	서울강동갑	74.5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2.24
6	경기용인병	74.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0.52
7	서울동작을	74.2	국민의힘 나경원	8.04
8	서울양천갑	74.0	더불어민주당 황희	1.63
9	서울강남을	73.7	국민의힘 박수민	17.14
10	부산북을	73.4	국민의힘 박성훈	5.14

〈투표율 하위 10개 선거구〉

연번	선거구	투표율 (%)	당선자	1-2위 격차(%p)
1	경북구미을	57.8	국민의힘 강명구	31.92
2	경기평택을	58.6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8.46
3	경기평택갑	58.7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14.82
4	충남천안을	59.3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13.33
5	충남천안갑	59.7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3.44
6	제주제주갑	59.7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25.76
7	경기시흥을	59.9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16.98
8	경기오산	60.2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18.04
9	경기안산병	61.1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11.09
10	경기부천갑	61.2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22.2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투표율 높으면 여당에 유리? 야당에 유리?

선거구 기준, 투표율 높을수록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도 높아지나, 설명력은 낮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건 선거에서 오래 된 속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속설은 다음과 같은 사고체계에서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는데, 이들은 주로 보수진영을 지지한다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표율도 낮는데, 젊은층은 주로 진보진영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낮다는 건 평소 투표하던, 보수 성향 강한 고연령층만 투표장에 나온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투표율이 높다는 건 고연령층 외에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층도 대거 투표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그럴까? 254개 선거구 별 투표율과, 각 선거구에서 양 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확인해 보면, 기존 속설과는 달리 오히려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다만 양 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과 대구경북의 선거구를 제외해도, 투표율이 양 당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결정계수(R제곱 값)는 더불어민주당 0.059, 국민의힘 0.038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투표율은 양 당 후보의 득표율을 예측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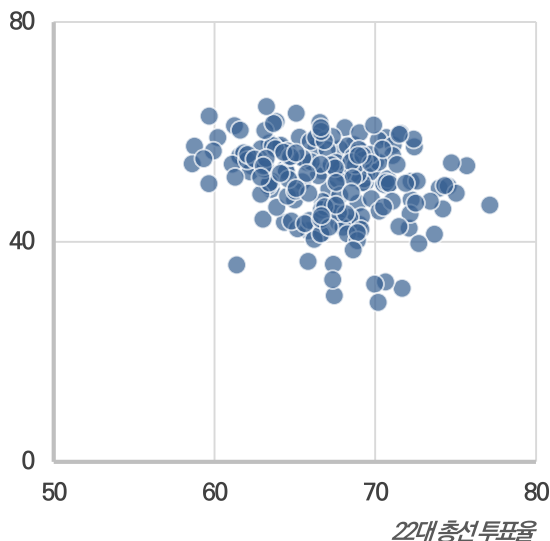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4일 발표한 [22대 총선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와 70세 이상의 적극 투표참여 의향은 각각 89.0%, 94.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하나,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81.7%)와 50대(87.0%)의 적극 투표참여 의향 또한 높은 수준이다. 투표의향이 가장 낮은 20대와 30대는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은 세대이다. 이제 투표율이 높다는 건, 양 진영이 강하게 결집해 승패를 가리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대선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처럼, 높은 투표율이 민주당(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표율을 통해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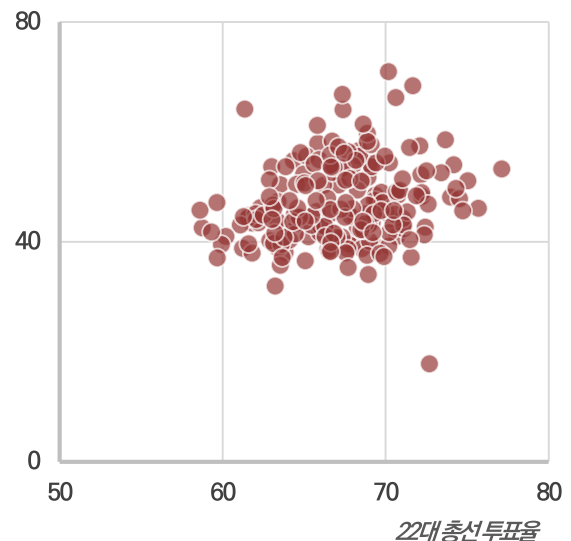
투표율 높으면 여당에 유리? 야당에 유리?

선거구 기준, 투표율 높을수록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도 높아지는 경향 있으나, 설명력은 낮아

각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각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지역구를 의미(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선거구는 제외). 가로축은 22대 총선에서의 투표율, 세로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

2 사전투표율 추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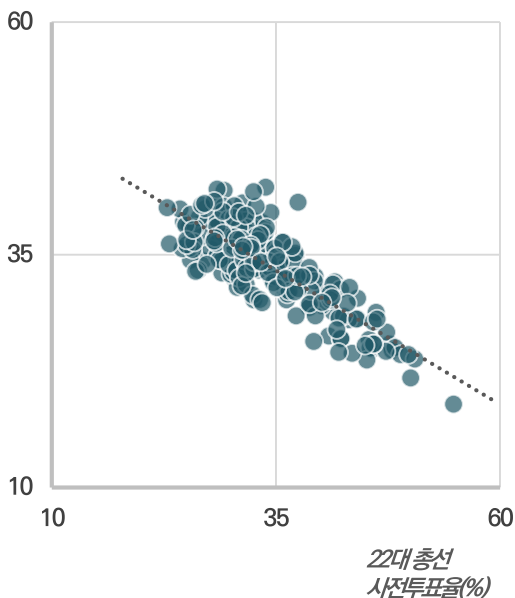
사전투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당일투표율은 낮아지나, 사전투표율 높을수록 최종투표율은 높아지는 경향 있어

높은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 기초자치단체별 22대 총선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그리고 최종투표율 간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우선,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당일 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투표의향이 있는 사람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표의향이 있는 사람이 사전투표일에 많이 투표하려 나올수록 당일 투표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사전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최종투표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일투표율은 낮고, 전체 투표율은 높은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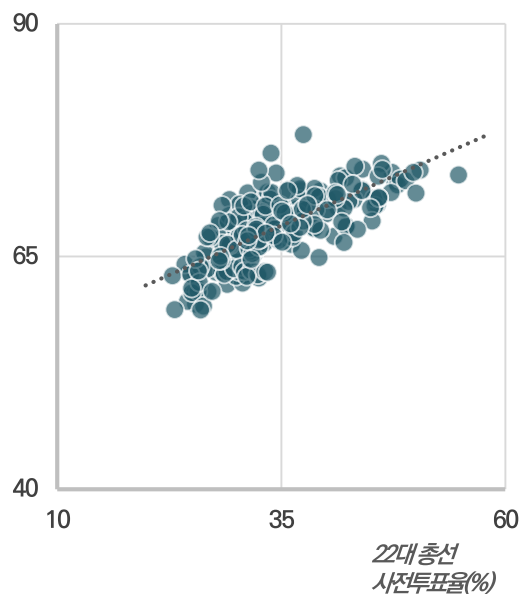
사전투표가 선거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투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혹은 투표의지가 강한 사람이 많거나 투표 열기가 뜨거운 곳일수록 많은 사람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사전투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당일투표율은 낮아지나, 사전투표율 높을수록 최종투표율은 높아지는 경향 있어

22대 총선
당일투표율(%)



22대 총선
최종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22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 당일 투표율과 최종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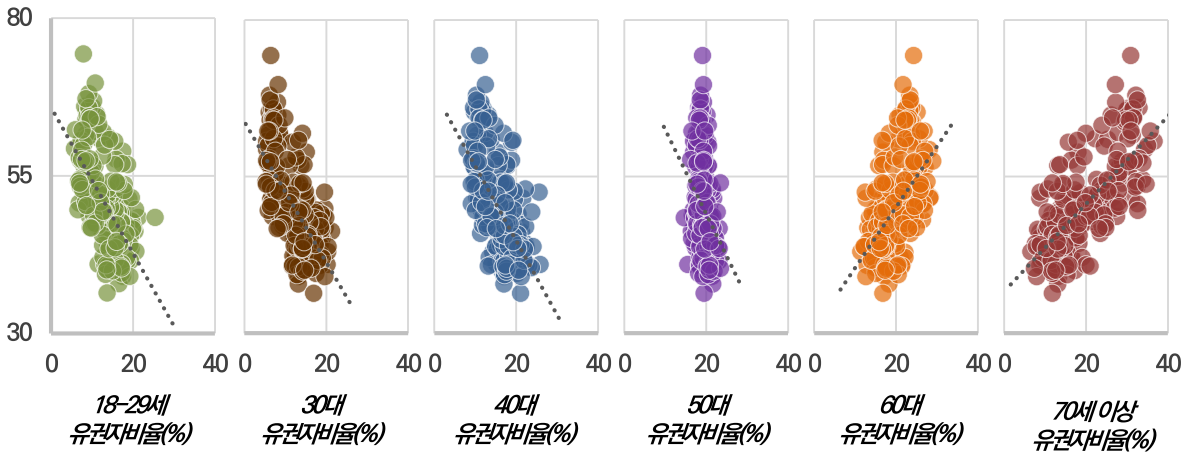
60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 비율 높은 곳일수록 전체 투표자에서 사전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

6·70대 유권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 데 이어, 전체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유권자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뤄 살펴보면 오히려 고령층이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별, 연령별 사전투표자수”에 따르면, 60대는 314만여 명이, 70세 이상은 207만여 명이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인구 중 522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4·50대의 사전투표자 수(529만여 명)와 비슷하고 18~39세의 사전투표자 수(335만여 명)보다는 200만 명 가까이 많은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 비율 높은 곳일수록 전체 투표자에서 사전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

22대 총선(2024년)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의 비율(%)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상관계수	-0.593	-0.650	-0.611	-0.279	0.531	0.732
R제곱	0.352	0.422	0.374	0.078	0.282	0.535
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 세로축은 22대 총선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의 비율

3 20대 대선 결과와 투표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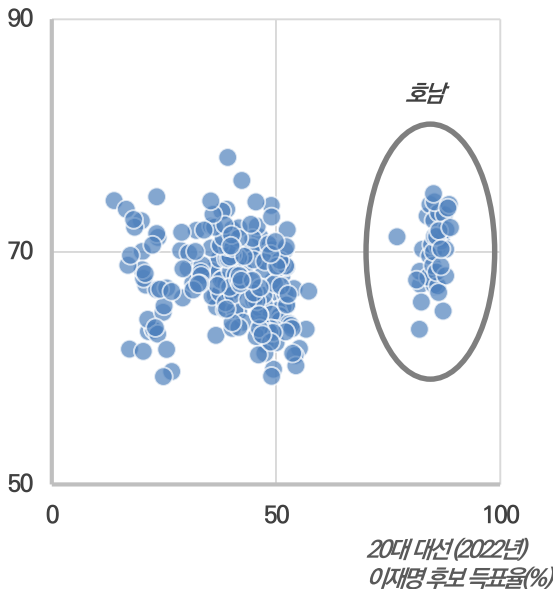
호남 제외,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 낮고 윤석열 후보 득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성 보여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결과와 이번 총선 투표율 간의 관계는, 이전에 살펴봤던 [사전투표율 경향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도 높아진다. 단, 호남은 예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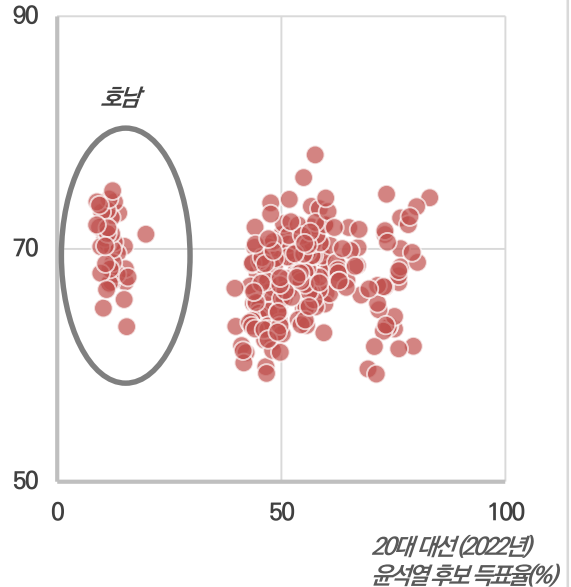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였고, 동시에 투표 의향도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령 유권자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도 높은 것이 확인된다. 즉,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고령층이 이번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고(단, 이들이 현재도 정부여당을 지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의 투표율도 높은 것이다.

호남 제외,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 낮고 윤석열 후보 득표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성 보여

22대 총선 (2024년)
투표율(%)



22대 총선 (2024년)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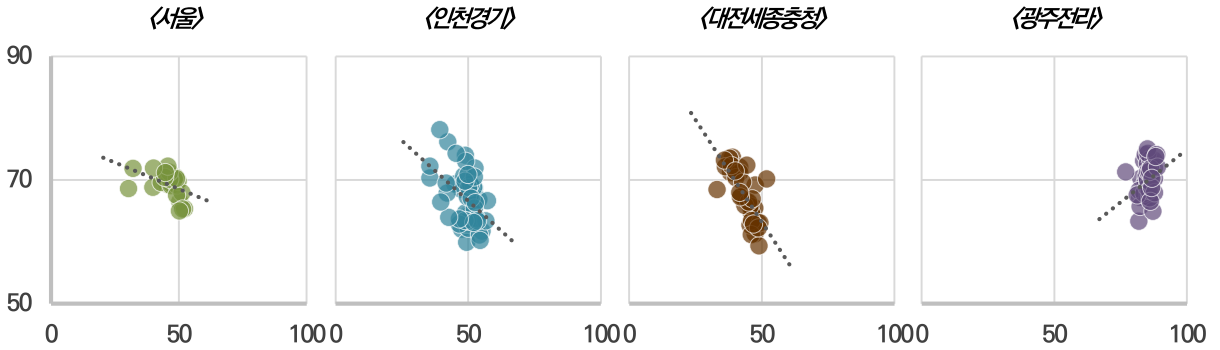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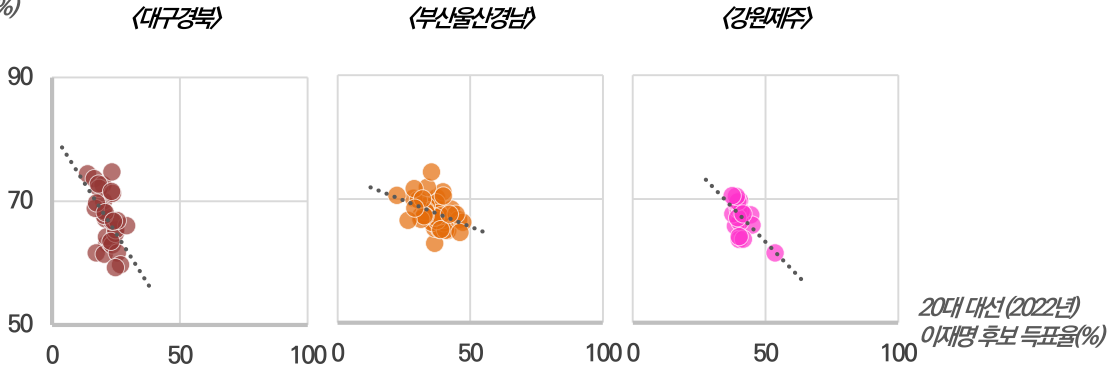
각 권역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22대 총선 투표율 비교 호남 제외,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 보여

22대 총선 (2024년)
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이재명 후보 득표율(%)

22대 총선 (2024년)
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이재명 후보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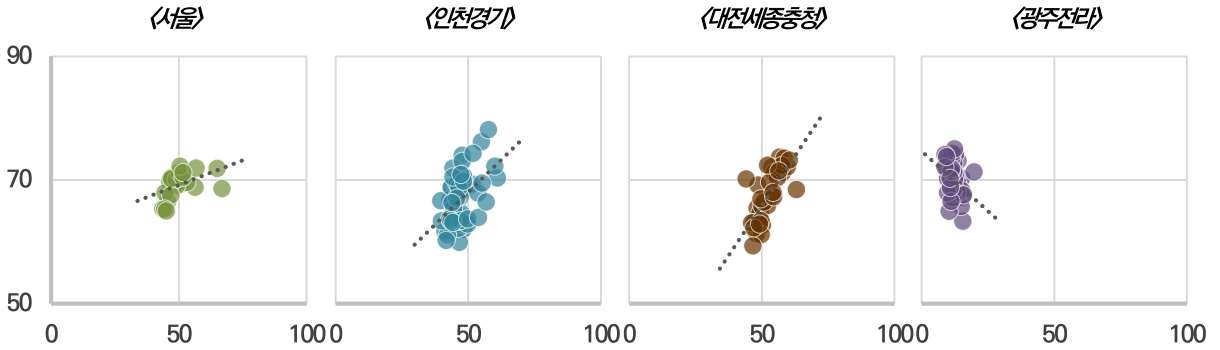
	전국 (호남제외)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강원제주
상관계수	-0.183	-0.457	-0.455	-0.708	0.282	-0.500	-0.391	-0.627
R제곱	0.032	0.209	0.207	0.501	0.079	0.250	0.153	0.380
P값	0.008	0.022	0.001	0.000	0.071	0.004	0.010	0.00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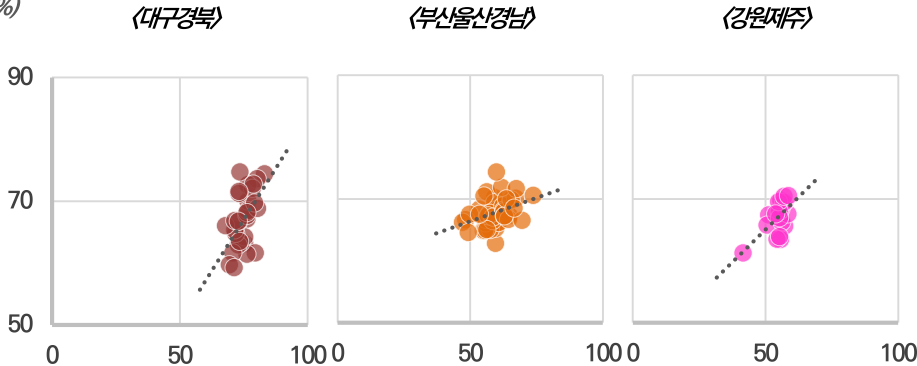
각 권역별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득표율과 22대 총선 투표율 비교 호남 제외, 윤석열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투표율은 높아지는 경향 보여

22대 총선 (2024년)
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윤석열 후보 득표율(%)

22대 총선 (2024년)
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윤석열 후보 득표율(%)

	전국 (호남제외)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강원제주
상관계수	0.191	0.459	0.492	0.719	-0.304	0.524	0.372	0.624
R제곱	0.035	0.211	0.242	0.516	0.093	0.274	0.139	0.375
P값	0.002	0.021	0.000	0.000	0.050	0.002	0.014	0.00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세로축은 22대 총선의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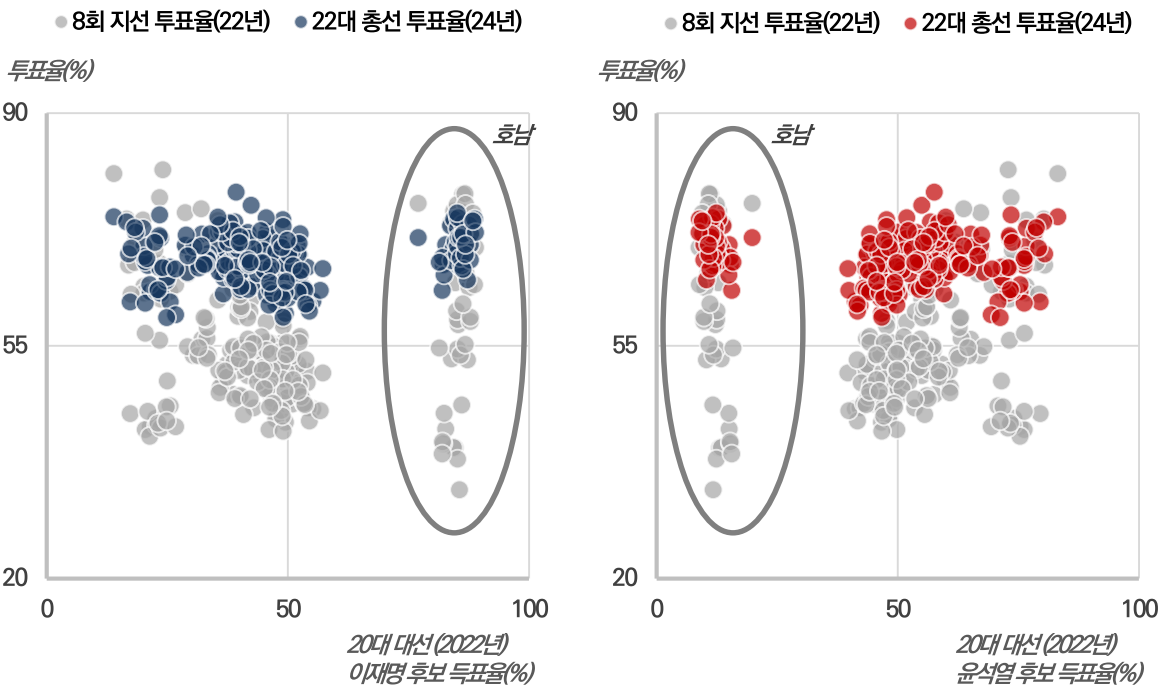
8회 지선에서는 호남 제외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투표율 낮은 경향 뚜렷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경향 크게 완화

대선 직후 3개월 여 만에 치러진 8회 지선은 50.9%의 투표율을 기록해, 2014년 6회 지선(56.8%), 2018년 7회 지선(60.2%)에 비하면 크게 낮았다. 투표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투표 포기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별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8회 지선 투표율을 비교하면, 호남을 제외하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지방선거 투표율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그 경향성은 크게 완화된 것이 확인된다. 동일하게,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완화되었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모두 상승해, 지선과는 달리 대선에서의 득표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양 진영이 최대한 결집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 다수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졌다. 전체 254개 선거구 가운데 39개 선거구(15%)에서 5%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지난 지선에서 호남 제외, 이재명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투표율 낮았던 경향도 이번 총선에서는 완화
반대로 윤석열 후보 득표율 높을수록 투표율 높았던 경향도 줄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세로축은 지난 8회 지선 및 이번 22대 총선의 투표율

4 지역 인구 특성과 투표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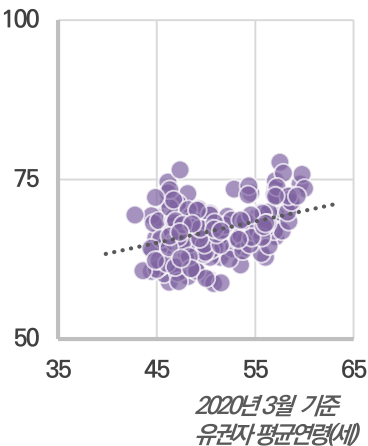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도 높아 21대 총선, 20대 대선과 동일 경향이나, 이번 총선 투표율의 상관성이 가장 높아

각 기초자치단체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평균연령과 투표율을 비교해 본 결과, 유권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앞서 [사전투표율 또한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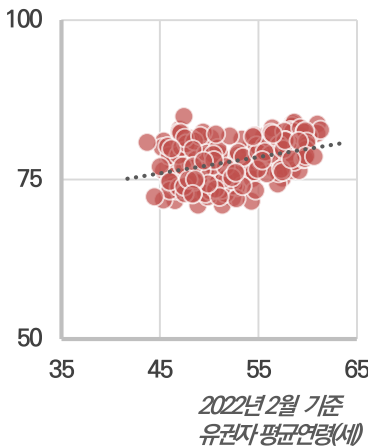
다만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 간 상관계수가 0.7을 넘었던 것과는 달리, 유권자 평균연령과 전체투표율 간의 상관계수는 0.472로 다소 낮다. 또한 유권자 평균연령과 사전투표율과의 상관성이 이전 선거 대비 점차 약해지는 경향성을 띤 것과는 달리, 유권자 평균연령과 투표율과의 상관성은 오히려 이전 선거보다 더 높아졌다.

유권자 평균연령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도 높아 21대 총선, 20대 대선과 동일한 경향, 사전투표와는 달리 이번 총선 투표율의 상관성이 더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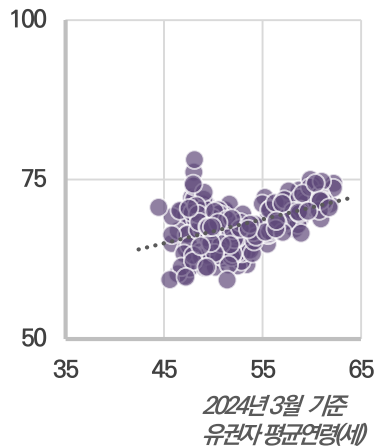
21대 총선 (2020년)
투표율(%)



20대 대선 (2022년)
투표율(%)



22대 총선 (2024년)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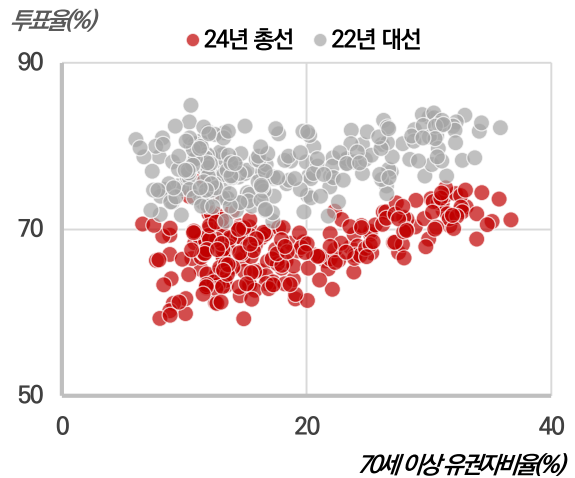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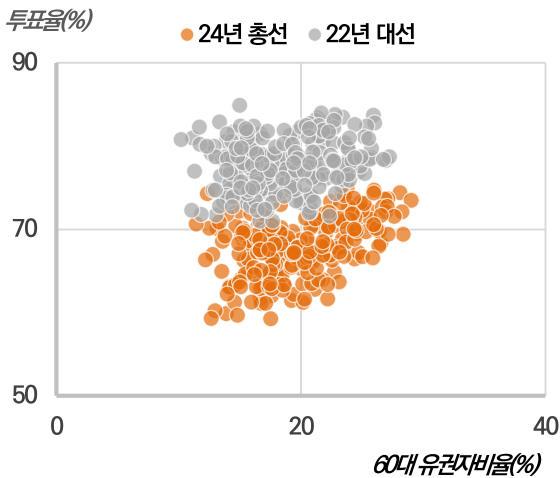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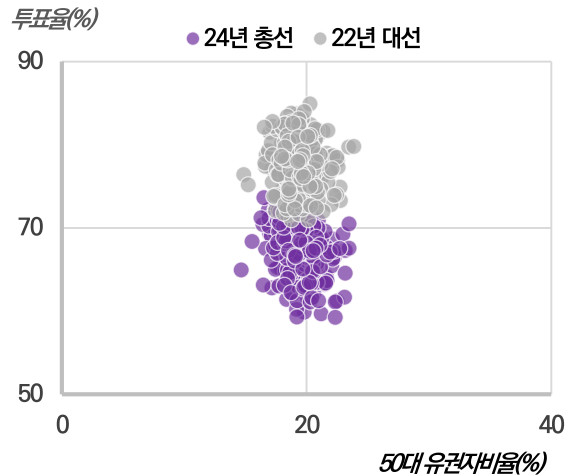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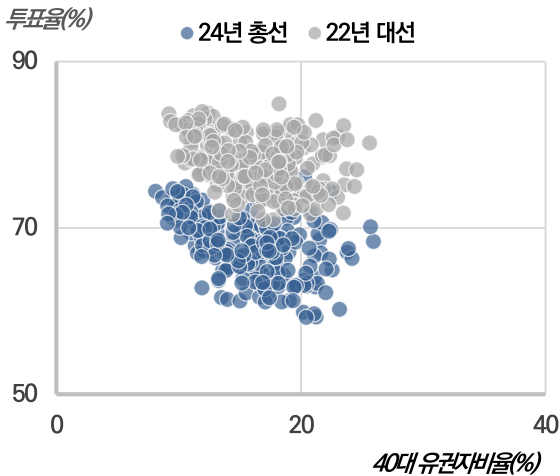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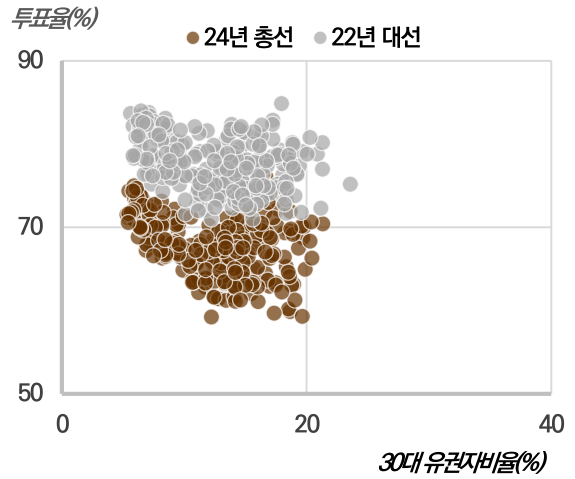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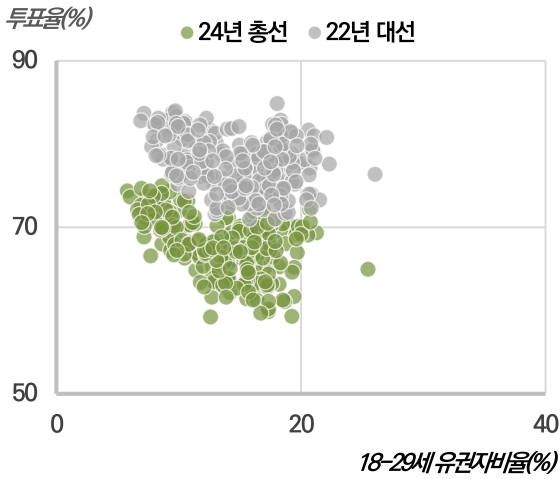


	21대 총선 (2020년)	20대 대선 (2022년)	22대 총선 (2024년)
상관계수	0.381	0.369	0.472
R제곱	0.146	0.138	0.224
P값	0.000	0.000	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시점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각 기초자치단체별 만 18세 이상 유권자 평균연령, 세로축은 각 선거별 투표율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 모두 2·3·40대 유권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은 감소, 60대와 70세 이상 유권자 비율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투표율은 증가하는 특성 유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비고: 각각의 점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가로축은 각 시점의 전체 유권자 중 각 연령대 별 유권자 비율, 세로축은 각 선거별 투표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